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I)

— 노년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만족도 —

남 윤 자 · 유 희 숙*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Clothing Size of Elderly Women (I)

Yun Ja Nam · Hee Sook Y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1996. 2. 16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in designing clothes for the elderly wom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0 elderly women over sixty years old.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Categorization of the subjects based on their age and Rohrer index.
2.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ody cathexis.
3.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lothing size satisfaction.
4.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lothing attitud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Height decreased while bust, waist and hip circumstances increased with ageing.
2. All subjects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changes associated with ageing.
3. The women over seventy years old were more dissatisfied with apparel size than those in the sixties. Especially the women aged over 75 complained the back length and the crotch length.
4. The elderly wwomen were interested in sewing condition, size and comfort with ageing even though they considered color and design a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in selectiong clothes.

I. 서 론

현대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

*이 논문은 1994년도 성심여자대학교 일반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명은 점차 증가하여 현대사회의 노인인구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5.67%, 2020년에는 총인구의 12.52%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¹⁾,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사회제도 및

건강문제, 의식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년층은 연령으로 보아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다른 연령층과는 현저하게 다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노화에 따른 역할상실,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의 감퇴, 경제력 상실, 사회적 접촉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²⁾. 의복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의복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³⁾, 의복선택에 있어서도 타인의 눈을 의식해 연령에 의한 제한을 크게 받아왔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제력 향상과 활발한 사회참여 등은 의복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때로는 의복으로 상실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보완하여 자아상을 높일수 있으므로⁴⁾ 노년층에 있어서의 의복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겠다.

정삼호⁵⁾는 성인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변화를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도는 신체적 만족도와 관련되어 형성되며, 또한 신체적 만족도는 체형과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년 여성에 있어서 체형변화를 최대한 보완하려면 의복의 맞춤새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각부위에 대한 신체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체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3, 6)}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종합적인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을 다루고 있으며, 정재은⁷⁾은 인체계측을 통하여 신체 각부위에 대한 신체 만족도를 다루었으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여성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연령에 따른 체형변화를 분석하기 보다는 균형 잡힌 체형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한 디자인과 기성복 표준치수에 의존하여 의복을 제작하고 있다^{8, 9)}. 따라서 기성복 사이즈에 연관된 적합성의 문제는 중년기 이후 체중이 크게 증가하고 신장은 감소하며, 체지방의 선택적 침착으로 다양한 체형분포를 가지게 되는 중년·노년층 여성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¹⁰⁾.

반면 의복구성측면에서의 노인복 연구는 체형변화에 따른 기능적인 원형 연구¹¹⁻¹⁴⁾가 대부분이며, 노년기 여성의 체형연구로 함옥상¹⁵⁾은 노년기의 특징인 背面 형태에 따라 체형특성을 분류하였고, 이종남¹⁶⁾은 주성분 분석에 의해 노년기 의복제작과 치수설정에 필요한 항

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형과 기성복 사이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홍숙¹⁷⁾은 체형 및 연령에 따른 성인여성의 기성복사이즈 만족도를 다루었으나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제외되었다.

한편 비만은 성인여성의 신체계측치의 주성분분석 결과 중요한 요인¹⁸⁾으로 의복원형 디자인의 중요한 항목에 영향을 미치며¹⁹⁾, 디자인 선호에 있어서도 신장과 함께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 내에서의 연령분포가 다양해짐을 고려할 때 노년층내의 연령 세분화와 비만도를 고려한 체형별 노년여성 기성복의 사이즈체계 정립과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노년 여성의 신체 각 부위의 신체 만족도를 파악하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노인복의 치수체계와 디자인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합도가 높은 노년 여성의 기성복 사이즈체계 정립과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인 제1에서는 60세 이상의 여자 노인을 대상으로 인체계측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령 및 비만정도를 고려한 체형별 신체특성을 파악하고, 연령 및 체형별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연령별 기성복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고, 제2보에서는 의복구성적 측면에서 연령 및 체형별 기성복 착용상태와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여 노년층 여성의 전반적인 의생활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용어정의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노화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갑을 기준으로 한 60세 이상, 또는 인구통계측면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기도 하며, 현두일²¹⁾은 노년층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인이라고 느껴지는 연령은 60세 이상인 경우가 57.8%로 가장 많아 나타나고 있다²²⁾.

임치경²³⁾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노년기의 시작을 60세로 보고 있으며,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연구에서는 신체적변화에 중심을 두어, 이종남¹⁶⁾은 55세 이상을 권영

회¹¹⁾, 이효진¹²⁾ 등은 60세 이상을 노년기 여성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노인의 개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여성을 노년층 여성으로 규정하였으며,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2) 체형

본 연구에서는 신장과 체중에 의하여 비만정도를 나타내는 Rohrer 지수(신체충실지수)에 의해 체형을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3체형으로 분류하였다.

$$\text{Rohrer 지수} = \text{체중(kg)} \times 10^5 / \text{신장(cm)}^3$$

한국인의 경우 보통 Rohrer 지수가 1.2 이하는 마른체형, 1.2 이상 1.5 미만은 표준체형, 1.5 이상은 비만으로 규정하나²⁴⁾,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福井²⁵⁾ 등은 55~59세 여성의 경우 비만형은 1.72 이상, 허약형은 1.21 이하로 제시하였으며, 김순자²⁶⁾는 35~54세 중년여성의 비만화 경향을 고려하여 1.70 이상은 비만체형, 1.2 미만을 허약형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중년이후 체지방 침착이 이루어진 노년층 여성임을 고려하여 1.2 이하를 마른체형, 1.7 이상을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였다.

3) 신체적 만족도

의복 맞음새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각 부분의 사이즈 및 형태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4)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한 기성복을 착용한 경우 의복의 각 부위가 활동하기에 편하면서 자연스럽게 맞는가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의복 디자인은 여성복의 다양한 복종 및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허리가 약간 들어간 일반적인 형태의 정장용 자켓, 뒤트임의 타이트 스커트, 부리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측정방법

1) 인체계측

계측항목은 기성복 사이즈 표기에 필요한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비만도에 의해 체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체중 등 5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계측방법은 Martin의 인체계측 방법과 공업진흥청의 KS A7003(인체계측용어) 및 KS A 7004(인체계측방법)에 준하였으며, 신장의 경우 면접원들의 설문응답에 의

하였음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혀둔다.

2) 신체적 만족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신체적 만족도 측정은 정재은⁷⁾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 중 의복 맞음새에 영향을 미치는 목, 상지, 하지 및 체간부에 관련된 길이 4항목, 둘레 7항목, 체중 등 12항목과 조사대상이 체형변화가 심한 노인층임을 감안하여 유방, 골격, 등이 굽은 정도, 허리가 굽은 정도 등 4항목을 포함한 총 16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측정은 의복의 fitting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이영운⁶⁾의 연구를 참고하여 검사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의복의 종류에 따라 맞음새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를 고려하여 자켓 9항목, 스커트 3항목, 바지 5항목 등 총 17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기성복에 대한 태도

기성복에 대한 태도는 기성복 사이즈 인지, 기성복 사이즈 불만사항, 의류구매시 관여요인, 노인전문매장의 필요성 인지 등에 대해 총 5항목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1995년 7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이 노인층이므로 조사자가 설문문을 읽어주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5점 척도 측정을 사용할 경우 설문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질 것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각각 5점 척도와 3점 척도로 작성하여 면접원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점 척도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존의 J. Cronbach²⁷⁾와 M.S. Matell & J. Jacoby²⁸⁾의 연구에서 5점 척도와 2점, 3점 척도간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3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본조사의 자료수집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8월-9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서울(강동, 강남, 강서, 강북), 경기(성남, 인천,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자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을 하였다. 조사자가 설문문을 읽어주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70부이며 이 가운데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3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신장과 체중의 신체계측치에 의해 Rohrer 지수를 산출하고 1.7 이상을 비만체형 1.2 이하를 마른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연령 및 비만도에 따른 체형별 신체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신체치수와,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 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는 연령 및 체형별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하였으며, 기성복에 대한 태도는 기성복 사이즈 인지정도, 기성복 사

이즈 불만 사항, 의류구매시 관여되는 주요 요인, 노인 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 노인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원인 등에 대하여 연령별로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연령 및 체형에 따라 신체적 특성을 제시하고, 신체적 만족도 및 의류 디자인에 따른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기성복에 대한 태도는 연령 별로 기성복 사이즈, 노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경향 및 의복구매시 관여하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1. 연령 및 체형별 신체특성

1) 연령별 신체특성

노년기 여성의 연령별 신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두둘레, 엉덩이 둘레 등 5 항목을 계측하고 Rohrer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노년기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는 4-50대 성인여성의 평균 신체치수²⁰⁾인 신장 154.6 cm, 가슴둘레 89.6 cm, 허리둘레 76.4 cm, 엉덩이 둘레 92.9 cm에 비하여 신장은 감소하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중년여성에 비하여 비만해지며, 각 부위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신체치수의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층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 65세 이후 신장과 체중이 감소하며 평균 비만도가 낮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 3>에 의하면 60대의 경우 비만체형이 20% 이하인데 비해 70대는 26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인원수(명)	백분율(%)
연령	60-64 세	45	19.6
	65-69 세	86	37.4
	70-74 세	46	20.0
	75 세 이상	53	23.0
지역	강동	50	21.7
	강남	38	16.5
	강서	43	18.7
	강북	34	14.8
	경기	65	28.5
학력	무학	63	27.4
	국졸	83	36.1
	중졸	36	15.7
	고졸	20	8.7
	대졸	28	12.2
합 계		230	100.0

<표 2> 연령별 신체특성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 세 이상		전체 세	
	M	SD	M	SD	M	SD	M	SD	M	SD
신 장	154.24	6.06	155.20	6.15	152.72	8.22	150.87	6.19	153.52	6.78
체 중	58.24	8.86	57.13	8.33	55.22	8.26	52.40	7.27	55.87	8.42
가슴둘레	92.48	7.48	91.65	7.67	91.68	7.67	91.47	8.36	91.78	7.75
허리둘레	86.93	9.43	84.03	9.32	86.41	10.07	86.93	9.29	85.75	9.52
엉덩이둘레	98.27	10.29	95.84	9.08	96.88	9.25	96.52	8.17	96.68	9.15
Rohrer 지수	1.59	0.21	1.53	0.23	1.56	0.27	1.53	0.25	1.55	0.24

%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에 따라 비만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만체형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가슴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감소하는 반면 허리둘레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가슴둘레 및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 치수가 감소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허리굴곡이 없어지며 뒤틀린 체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 비만분포

	60~64 세 (n=45)		65~69 세 (n=86)		70~74 세 (n=46)		75 세 이상 (n=53)		전체 (n=230)	
	N	%	N	%	N	%	N	%	N	%
마른체형	1	2.2	5	5.8	4	8.7	2	3.8	12	5.2
표준체형	36	80.0	64	74.4	30	65.2	37	69.8	167	72.6
비만체형	8	17.8	17	19.8	12	26.1	14	26.4	51	22.2

<표 4> 체형별 신체특성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전체	
	M	SD	M	SD	M	SD	M	SD
신장	158.33	6.36	154.66	5.95	148.63	7.06	153.52	6.78
체중	50.25	8.00	54.23	7.07	62.57	9.07	55.87	8.42
가슴둘레	88.71	6.96	90.15	6.94	97.82	7.49	91.78	7.75
허리둘레	77.25	12.06	83.65	8.00	94.60	7.63	85.75	9.52
엉덩이둘레	90.63	5.60	94.87	7.68	104.03	10.29	96.68	9.15
Rohrer 지수	1.18	0.26	1.46	0.12	1.90	0.16	1.55	0.24

<표 5> 연령별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 세 이상	F 값
목둘레	1.28	1.31	1.52	1.41	1.9708
목길이	1.40	1.33	1.43	1.47	0.8586
어깨넓이	1.27	1.47	1.46	1.38	1.3217
몸통둘레	1.44	1.44	1.61	1.51	0.7820
유방 크기 / 처짐	1.49	1.59	1.63	1.42	1.2576
허리둘레	1.44	1.59	1.52	1.49	0.5754
엉덩이둘레	1.49	1.53	1.57	1.43	0.4211
다리길이	1.56	1.49	1.28	1.49	1.8811
대퇴둘레	1.47	1.56	1.48	1.43	0.5108
하퇴둘레	1.51	1.55	1.46	1.32	1.6753
발목둘레	1.44	1.47	1.43	1.36	0.3648
신장	1.62	1.55	1.48	1.62	0.5275
체중	1.56	1.52	1.74	1.53	1.2233
체격 / 골격크기	1.40	1.42	1.57	1.32	1.4472
등굽은 정도	1.00 B	1.07 B	1.15 B	1.43 A	14.3837 ***
허리굽은 정도	1.02 B	1.01 B	1.09 B	1.32 A	12.5802 ***

던컨케스트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B>C)

*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체형별 신체특성

비만도에 따른 체형별 신체특성은 <표 4>와 같다. 마른체형은 비교적 신장이 크고, 허리둘레를 제외한 신체치수는 4-50대 중연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만일수록 신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는 마른체형이 13.38 cm, 표준체형은 11.22 cm, 비만체형은 9.43 cm로 마른체형일수록 허리굴곡이 심하게 들어갔음을 알 수 있으며, 의복치수 설정시 이러한 체형별 신체치수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체만족도

1) 연령별 신체만족도

연령별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를 위해 16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신체 크기를 나타내는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에 대하여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평균이 대부분 1.4~1.6 정도로 분포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체형변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등이 굽은 정도, 허리가 굽은 정도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75세를 전후하여 상체가 굽어 背面 형태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다.

2) 체형별 신체만족도

체형별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를 위해 16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목길이, 신장 등의 길이항목과 등과 허리가 굽은 정도는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퇴둘레, 발목둘레 등도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비만시 체지방 침착이 대부분 체간부와 대퇴부에 걸쳐 이루어지며, 종아리와 발목부분 등의 말단부에는 큰 변화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목둘레와 허리둘레 항목은 비만체형의 경우 표준체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으나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깨넓이, 몸통둘레, 유방크기/처짐,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대퇴둘레, 체중, 체격 등의 항목은 마른체형과 비만체형 모두 표준체형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다리길이는 마른체형에 비하여 표준체형과 비만체형이

<표 6> 체형별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F 값
목둘레	1.42 AB	1.27 B	1.71 A	14.0313 ***
목길이	1.33	1.36	1.53	1.9183
어깨넓이	1.67 A	1.34 B	1.55 A	3.8773 *
몸통둘레	1.75 A	1.37 B	1.82 A	11.8521 ***
유방 크기 / 처짐	1.83 A	1.46 B	1.73 A	4.7568 **
허리둘레	1.67 AB	1.39 B	1.94 A	15.8197 ***
엉덩이둘레	1.75 A	1.38 B	1.88 A	14.6780 ***
다리길이	1.08 B	1.46 A	1.55 A	3.0251 *
대퇴둘레	1.75 A	1.42 B	1.67 A	4.8796
하퇴둘레	1.67	1.43	1.55	1.4634
발목둘레	1.67	1.41	1.41	1.0205
신장	1.42	1.56	1.63	0.5376
체중	1.92 A	1.44 B	1.94 A	14.5832 ***
체격 / 골격크기	1.67 A	1.34 B	1.63 A	5.9009 **
등굽은 정도	1.25	1.16	1.14	0.3880
허리굽은 정도	1.17	1.12	1.02	2.0974

던컨테스트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B>C)

* : P<0.05 ** : P<0.01 *** : P<0.001

모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마른체형이 표준체형이나 비만체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장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마른체형은 목둘레와 다리길이 항목을 제외한 신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둘레항목에 대하여 비만체형과 마찬가지로 표준체형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우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반면 노년층 여성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마른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1) 연령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의복 디자인에 따라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연령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를 위해 17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켓의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항목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 대해서는 70 세 이상의 노년층이 60 대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등길이 75 세 이상이 가

장 만족도가 낮고 60-74 세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유있는 의복을 선호하며, <표 5>에서 살펴보았듯이 75 세를 전후하여 등과 허리가 굽게 됨에 따라 등길이가 당겨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스커트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스커트 길이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60 대에 비하여 70 대가 만족도가 낮으며, 스커트 길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유있고, 스커트 길이가 길어 노출이 적은 의복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바지의 경우 허리둘레, 밑위길이 항목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허리둘레는 70~75 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만족도가 낮고, 밑위길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유있는 편안한 의복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 의복제작시 각 연령에 적합한 디자인과 함께 연령별로 특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스커트

<표 7> 연령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60-64 세	65-69 세	75-74 세	75 세 이상	F 값
자 켓	전체 맞춤새	1.27	1.44	1.54	1.47	1.6451
	가슴둘레	1.16 B	1.33 AB	1.52 A	1.43 A	4.0074 **
	진동둘레	1.24	1.40	1.41	1.43	1.0840
	소매둘레	1.24	1.29	1.46	1.40	1.5610
	소매길이	1.47	1.40	1.41	1.42	0.1402
	어깨넓이	1.27	1.34	1.39	1.40	0.6121
	허리둘레	1.20 B	1.35 AB	1.52 A	1.45 A	2.9832 *
	등길이	1.09 B	1.16 B	1.13 B	1.36 A	3.8562 *
	상의길이	1.27	1.33	1.26	1.42	0.7901
	스커트	1.20 B	1.27 B	1.65 A	1.68 A	10.1190 ***
스커트	엉덩이둘레	1.29 B	1.38 B	1.61 A	1.68 A	4.7537 **
	스커트길이	1.58 C	1.40 C	1.76 B	2.06 A	12.5613 ***
바 지	허리둘레	1.16 B	1.21 B	1.61 A	1.34 B	5.8137 ***
	엉덩이둘레	1.24	1.36	1.48	1.40	1.1553
	대퇴둘레	1.27	1.22	1.37	1.26	0.7097
	밑위길이	1.24 B	1.34 B	1.48 AB	1.57 A	3.3619 *
	바지길이	1.47	1.34	1.24	1.47	1.6166

던컨테스트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B>C)

* : P<0.05 ** : P<0.01 *** : P<0.001

길이, 밑위길이 부위에 대한 치수조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체형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의복 디자인에 따라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체형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를 위해 17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켓의 경우 전체적인 맞음새,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둘레, 어깨넓이, 허리둘레 항목에 대하여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맞음새는 비만체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마른체형과 표준체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둘레, 허리둘레 등의 둘레항목에 대하여 마른체형과 비만체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표준체형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깨넓이 항목은 세 체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마른체형이 가장 만족도가 낮고, 비만체형, 표준체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불만원인이 비만체형의 경우 의복이 작은 것에 기인하는 반면 마른체형은 의복이 크기 때문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커트의 경우 허리둘레 항목에서 마른체형과 비만체

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표준체형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바지의 경우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기성복의 경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표준치수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마른체형과 비만체형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슴둘레에 비례한 일률적인 증감이 아니라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둘레, 어깨넓이, 허리둘레 등의 항목에 대하여 노년층의 체형특성이 고려된 치수조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기성복에 대한 태도

1) 기성복 사이즈 인지도

의복종류에 따라 자신의 기성복 사이즈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령별로 백분율을 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노년층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팬티(91.7%), 바지/스커트(90.0%), 점퍼류(82.6%), 내의(81.3%)와 같이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가슴둘레 만으로 또는 문자로 간결하게 표기된 기성복 사이즈는 많이 인지하고 있으나 자켓(68.3%), 블라우스(50.4%) 등에 대한 기성복 사이즈 인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표 8> 체형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F 값
자 켓	전체 맞음새	1.67 AB	1.34 B	1.71 A	8.3192 ***
	가슴둘레	1.67 A	1.30 B	1.47 A	4.0385 *
	진동둘레	1.83 A	1.31 B	1.51 A	6.9143 **
	소매둘레	1.75 A	1.27 B	1.47 A	6.4098 **
	소매길이	1.58	1.39	1.45	0.6551
	어깨넓이	2.00 A	1.26 C	1.47 B	14.0319 ***
	허리둘레	1.75 A	1.29 B	1.59 A	8.9785 ***
	등길이	1.25 B	1.16	1.25	0.9928
	상의길이	1.08	1.33	1.35	1.1456
	스커트	허리둘레	1.75 A	1.34 B	1.65 A
엉덩이둘레		1.83	1.43	1.55	2.7826 **
스커트길이		1.58	1.66	1.65	0.0858
바 지	허리둘레	1.42	1.26	1.45	2.1896
	엉덩이둘레	1.50	1.37	1.33	0.3613
	대퇴둘레	1.33	1.27	1.25	0.0952
	밑위길이	1.17	1.38	1.47	1.3319
	바지길이	1.00	1.40	1.39	2.3346

던컨테스트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B>C)

* : P<0.05 ** : P<0.01 *** : P<0.001

나고 있다. 특히 브래지어(41.7%)의 경우 사이즈 인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이는 노년층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복종류에 따라 연령별로 기성복 사이즈를 인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외의류의 경우 자켓과 바지/스커트 사이즈를 인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점퍼류와 블라우스에 대한 사이즈 인지는 65-69세의 연령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의류의 경우 펜티와 브래지어의 사이즈 인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내의의 사이즈 인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주 착용하는 의복의 사이즈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상과 같은 연령별 사이즈 인지도에 관한 결과에 의해 노년층 여성의 의복착용 경향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기성복 사이즈 불만사항

의복구매시 느끼는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불만사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응답자의 경우 치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16.5%), 브랜드에 따라 치수 차이가 크다(10.0%), 사이즈 표기방법이 복잡하다

(4.3%) 등을 들고 있으며 불만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맞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응답이 62.2%로 구체적인 자기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노인이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70대 보다 브랜드별 치수차이(60-64세는 11.1%, 65-69세는 16.3%)에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표기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75세 이상의 경우 <표 9>에서 나타나듯이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으므로 브랜드별 치수차이와 표기방법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치수의 다양성이 부족함에 대한 불만은 70-74세의 연령대가 가장 높게 느끼며, 75세 이상은 맞춤을 많이 이용하여 비교적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표 7>의 연령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서 나타나듯이 70세 이상의 경우 연령에 따른 체형변화에 적합한 기성복 사이즈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기성복 사이즈 인지정도

	60~64 세 (n=45)		65~69 세 (n=86)		70~74 세 (n=46)		75 세 이상 (n=53)		전 체 (n=230)	
	N	%	N	%	N	%	N	%	N	%
자켓	40	88.9	72	83.7	24	52.2	21	39.6	157	68.3
점퍼/스웨터	39	86.7	76	88.4	362	78.3	39	73.6	190	82.6
블라우스	28	62.2	59	68.6	17	37.0	12	22.6	116	50.4
바지/스커트	43	95.6	79	91.7	41	89.1	44	83.0	207	90.0
내의	36	80.0	67	77.9	39	84.8	45	84.9	187	81.3
브래지어	32	71.1	48	55.8	10	21.7	6	11.3	96	41.7
펜티	43	95.6	81	94.2	41	89.1	46	86.8	211	91.7

<표 10> 기성복 사이즈 불만사항

	60~64 세 (n=45)		65~69 세 (n=86)		70~74 세 (n=46)		75 세 이상 (n=53)		전 체 (n=230)	
	N	%	N	%	N	%	N	%	N	%
브랜드별 치수차이	5	11.1	14	16.3	3	6.5	1	1.9	23	10.0
표기방법의 복잡성	1	2.2	3	3.5	5	10.9	1	1.9	10	4.3
치수의 다양성 부족	7	15.6	13	15.1	10	21.7	8	15.1	38	16.5
없다(맞춤이용)	2	4.4	4	4.7	3	6.5	7	13.2	16	7.0
무응답	30	66.7	52	60.5	25	54.3	36	67.9	143	62.2

3) 의류구매시 관여되는 주요 요인

<표 11>에 의하면 노년층 여성의 의류구매시 관여하는 주요 요인은 색상(49.6%), 디자인(10.0%), 봉제상태(9.1%), 사이즈(7.0%), 편안함(5.2%), 유행과 상표(4.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류구매시 색상, 디자인, 사이즈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가격(1명), 질감(2명), 내구성(1명) 등이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반면, 봉제상태, 사이즈, 편안함 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60대 여성은 70대 여성에 비하여 유행을 중시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60-64세에 비하여 상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경향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12>와 같이

8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88.6%로 가장 높고, 70-74세는 82.6%, 65-69세는 83.7%, 60-64세의 연령대는 77.8%로 60대 초반 보다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 전문매장이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5-69세와 75세 이상의 연령대가 70-74세의 연령대에 비해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에 의하면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원인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디자인의 다양성(34.8%), 구매 용이성(22.6%), 사이즈의 다양성(7.8%)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11>의 의류구매시 관여하는 주요 요인에서 나타나듯이 의류구매시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사이즈에 대한 관심보다 크기 때문이며, 구매의 용이성은 노년층 여성들의 활동성 감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의류구매시 관여되는 주요 요인

	60~64 세 (n=45)		65~69 세 (n=86)		70~74 세 (n=46)		75 세 이상 (n=53)		전 체 (n=230)	
	N	%	N	%	N	%	N	%	N	%
색상	26	57.8	43	50.0	21	45.7	24	45.3	114	49.6
디자인	6	13.3	8	9.3	5	10.9	4	7.5	23	10.0
봉제상태	3	6.7	6	7.0	7	15.2	5	9.4	21	9.1
사이즈(맞음새)	1	2.2	4	4.7	5	10.9	6	11.3	16	7.0
유행	3	6.7	7	8.1	0	0.0	0	0.0	10	4.3
상표	0	0.0	6	7.0	3	6.5	1	1.9	10	4.3
신체결점 보완	1	2.2	3	3.5	1	2.2	3	5.7	8	3.5
편안함	1	2.2	3	3.5	3	6.5	5	9.4	12	5.2
관리의 용이성	1	2.2	2	2.3	0	0.0	2	3.8	5	2.2
기존옷과의 조화	1	2.2	2	2.3	0	0.0	1	1.9	4	1.7
동료와 동조성	1	2.2	2	2.3	0	0.0	0	0.0	3	1.3
기타	1	2.2	0	0.0	1	6.5	2	3.8	4	1.7

<표 12>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

	60~64 세 (n=45)		65~69 세 (n=86)		70~74 세 (n=46)		75 세 이상 (n=53)		전 체 (n=230)	
	N	%	N	%	N	%	N	%	N	%
필요없다	5	11.1	4	4.7	4	8.7	3	5.7	16	6.9
그저그렇다	5	11.1	10	11.6	4	8.7	3	5.7	22	9.6
필요하다	35	77.8	72	83.7	38	82.6	47	88.6	192	83.5

<표 13>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원인

	60~64 세 (n=45)		65~69 세 (n=86)		70~74 세 (n=46)		75 세 이상 (n=53)		전 체 (n=230)	
	N	%	N	%	N	%	N	%	N	%
디자인 다양성	9	20.0	37	43.0	12	26.1	22	41.5	80	34.8
사이즈 다양성	1	2.2	12	14.0	2	4.3	3	5.7	18	7.8
구매 용이성	13	28.9	14	16.3	12	26.1	13	24.5	52	22.6
계층 차별화	1	2.2	0	0.0	1	2.2	0	0.0	2	0.9
무응답	21	46.7	23	26.7	19	41.3	15	28.3	78	33.9

연령별로 살펴보면 60-64세의 경우 무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매의 용이성이 가장 높고 디자인의 다양성, 사이즈의 다양성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65-69세와 75세 이상의 경우 디자인의 다양성이 가장 높고 구매의 용이성, 사이즈의 다양성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70-74세는 무응답자가 42.3%로 높고 디자인의 다양성, 구매의 용이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2>의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나타나듯이 65-69세와 75세 이상의 경우 노인매장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60-64세의 경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하여 필요성을 적게 느끼며, 70-74세의 경우 기존 노인복의 디자인이 이 연령대 여성의 기호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 여성의 기성복제작은 대부분 70-74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연령대의 기호에 적합한 디자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IV. 결 론

본 논문은 노년층 여성의 의복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적합도가 높은 노년 여성이 기성복 사이즈 체계 정립과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60세 이상의 여자 노인 230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비만정도를 고려한 체형별 신체특성을 파악하고, 연령 및 체형별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연령별 기성복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 및 체형별 신체특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과 체중이 감소하고 평균 비만도가 낮아지나 개인에 따라 비만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감소하는 반면 허리둘레는 변화가 적어 뚱뚱한 체형을 나타냈다. 마른 체형은 중년여성과 비슷한 체형을 보이며, 비만체형일 수록 신장이 작고 뚱뚱한 체형을 나타냈다.

2. 연령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

연령별 신체만족도는 신체 크기를 나타내는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에 대하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등은 굽은 정도, 허리가 굽은 정도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신체 만족도는 목길이, 신장, 등과 허리가 굽은 정도, 하퇴둘레, 발목둘레 등에 대해서는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둘레와 허리둘레는 비만체형이 표준체형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넓이, 몸통둘레, 유방 크기/처짐,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대퇴둘레, 체중, 체격 등은 마른체형과 비만체형 모두 표준체형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리길이는 표준체형과 비만체형이 마른체형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 및 체형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연령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는 자켓의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60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등길이는 75세 이상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의 경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60대에 비하여 70대가 만

족도가 낮으며, 스커트 길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바지의 경우 허리둘레는 70~75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만족도가 낮고, 밑위길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는 자켓의 경우 전체적인 맛음새는 비만체형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둘레, 허리둘레는 마른체형과 비만체형이 표준체형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깨넓이는 마른체형일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성복에 대한 태도

기성복 사이즈 인지도는 팬티, 바지/스커트, 점퍼류, 내의, 자켓, 블라우스, 브래지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자켓, 바지/스커트, 팬티와 브래지어의 사이즈 인지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점퍼류와 블라우스에 대한 사이즈 인지도는 65-69세의 연령대가 가장 높고, 내의의 사이즈 인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사이즈 불만사항은 다양성이 부족하다가 가장 많았으며, 브랜드에 따라 치수차이가 크다, 사이즈 표기방법이 복잡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치수차이에 대한 불만은 60대가 70대 보다 높으며, 표기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75세 이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의 다양성이 부족함에 대한 불만은 70-74세의 연령대가 가장 높았다.

의류구매시 관여하는 주요 요인은 색상, 디자인, 봉제상태, 사이즈, 편안함, 유행과 상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반면 봉제상태, 사이즈, 편안함 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전문매장의 필요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느끼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지 원인으로서는 디자인의 다양성이 가장 높고, 구매 용이성, 사이즈의 다양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64세는 구매의 용이성을, 65세 이상은 디자인의 다양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체형을 비만도에 의해서만 분류하고,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항목들에 대해서만 신체특성을 고찰하였으며 계측여건의 어려움

으로 신장을 설문에 의해 조사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을 확대하고, 체형의 형태적 특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계측부위를 확대시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상목, 한국 고령자를 위한 쾌적공간 — 유료 노인복지시설 계획 연구를 통하여, 제 1 회 한·일 합동 심포지엄 고령자와 생활환경, 1995.
- 2) 강혜원,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의복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4, 1990.
- 3)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4) Callis, C., Appearance Programs with Female Chronic Psychiatric Hospital Patients: A Comparison of Six-week and Nine-week Treatment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48(4), 34~39, 1982.
- 5) 정삼호,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 가정문화논의, 2, 1988.
- 6) 이영운,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7)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8) 조길수, 성인여자의 의복치수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9)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8.
- 10) 최혜선·이경미,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995.
- 11) 권영희, 노년기 여성을 위한 Skirt 원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12) 이효진,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13) 김경인, 노년기 여성의 Bodice 원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14) 우미화·함옥상, 노년기 여성 의복 Pattern의 인간공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1994.
- 15) 함옥상, 노년층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1, 1985.
- 16) 이종남, 노년기 여성의 의복제작을 위한 체형연구 — 주성분 분석에 의한 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17) 정홍숙·정삼호, 성인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 4, 1982.
- 18) 남윤자, 여성 상반신의 측면 형태에 따른 체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19) 磯谷藤枝・原田陸子, 夫人服設計のための基礎的研究 — Pignet-Vervaeck 指數による體型分類, 家政學雜誌, 27, 1976.
 - 20) 정삼호・강혜원,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 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1991.
 - 21) 현두일, 노인의 부양, 국회보 179, 1981.
 - 22) 전재일, 노인으로서의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1978.
 - 23)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24)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민표준 체위조사 연구 보고서, 1980.
 - 25) 福井彌生 外 2人, 成人女子の體型に関する研究 — 年別の瘦・肥滿型の特徴, 日本衣服學會誌, 35(1), 1991.
 - 26) 김순자,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측면체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0(2), 1996.
 - 27) Cronbach, Lee J., Further Evidence on Response Sets and Test Desig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0, p. 22, 1950. : 조성경(1986) “척도의 항목수가 신뢰도와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인용.
 - 28) Matell, M.S. & Jacob, J., Is there an Optimal Number of Alternatives for Likert Scale Items? Study I: Reliability and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1, pp. 657~674, 1971. : 조성경(1986) “척도의 항목수가 신뢰도와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인용.
 - 29)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보고서, 1986.